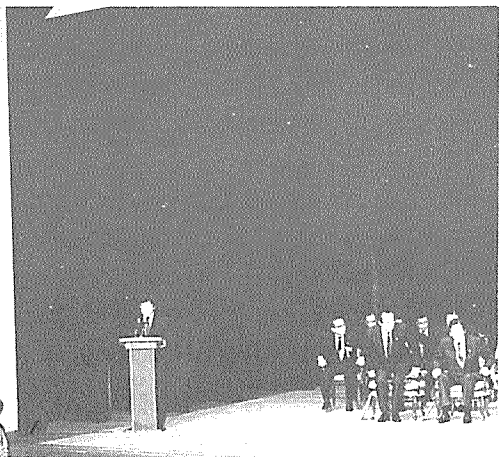




제18회 보건의 날 기념식

## 홍보교육을 통한 계몽효과 강화

— 金正秀 보사회장관, 기념사 통해 밝혀



제18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金正秀 보건사회부장관을 비롯해 辛相佑 국회보사위원장, 尹伯榮 서울시부시장 등 보건의료관계 인사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金正秀 보건사회부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올해에는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의료보호수가를 보험수가와 일치시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공중보건의를 확대. 배치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며, 홍보교육을 통한 에이즈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감염우려

자에 대한 집중 검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마약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의식 수준 향상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맞는 위생관리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제도의 정착,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정부 당국과 더불어 보건의료단체 및 관련 종사자, 국민 모두의 참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또, 국민 보건 향상에 공이 큰 보건 유공자 287명에게 국민훈장, 국민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사회부장관 표창장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 보건사회부는 4월을 보건의 달로 정하고 관련 단체와 협동으로, 성인병 퇴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고혈압과 암의 예방을 위한 계몽활동의 일환으로 시민공개강좌, 강연,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동시에 각종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오지주민·노인 등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 등을 전개했다.

## 元容福 사업부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식



金正秀 보사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고 있는 원부장

健協 본부 元容福 사업부장이 지난 4월 7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있었던 제 18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元부장은 75년 본회에 입사한 이래 조사연구과장, 지부 사무국장, 본부 기획부장 등을 거치면서 기생충 퇴치 사업과 국민 건강관리 사업 활성화, 국민 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계몽 활동 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한편 각 시도지부별로 실시된 이날 기념식에서 본회 시도지부 직원들이 보건사회부장관 및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들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는 한편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시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보건사회부장관 표창

- 조수남(광주·전남지부 서무과장)
- 박정(경북지부 서무과장)
- 이상기(경남지부 검사소장)
- 김병규(본부 3급 전산요원)
- 안한승(서울지부 직원)

—충청북도지사 표창

- 이회봉(경북지부 사무국장)

—경기도지사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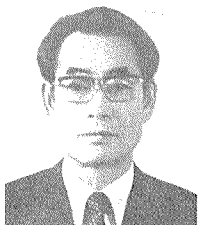
- 명화련(경기지부 3급 임상병리사)

—광주직할시장 감사장

- 최우섭(광주·전남지부 임상병리사)

## 金相仁 이사, 서울의대학장 취임

지난 11일 취임식 가져



健協 金相仁 이사(서울의대 임상병리학과 교수)가 서울의대학장으로 취임했다.

지난달 21일 전체 교수회의에서의 학장 직선에서 후보로 추천된 후, 4월 4일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김교수는 지난 11일 취임식을 가졌다.

1928년 경남 함양 출신인 신임 金학장은 서울대학병원 임상병리과장 겸 주임교수, 제2진료부장, 대한임상병리학회장, 서울대 인구의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임상병리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기건강검사의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김학장은 지난 83년부터 현재까지 본회의 이사로 재임하면서 건강관리사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 5월 공개강좌, “자궁암의 예방과 치료”

5월 22일 오후 2시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5월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홍보관에서 실시한다.

이번 공개강좌의 주제는 “자궁암의 예방과 치료”로 우리나라 기혼여성에 있어 주요 관리대상인 자궁암의 조기발견·치료의 중요성, 예방관리를 위한 방법, 치료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게 된다.

한편 지난 4월 24일에 있었던 4월 공개강좌에서는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홍명호 박사가 “가족 성인병의 예방과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인병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 “건강한 신자가 건강한 교회를”

신자 종합검사 실시한 고산감리교회

健協 대전·충남지부는 지난 4월 3일, 충남 당진군 고대면 성산리 소재 고산감리교회 신자에 대한 종합 건강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사는 고산감리교회의 장재환 목사(36세)가 “건강한 신자가 건강한 사회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신자들의 건강검사를 교회사업으로 계획, 교인들에게 종합건강진단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지난 4월 3일 1차로 50여명의 신자들

이 건협 대전·충남지부를 방문하여 기초검사부터 위장조영촬영까지 약 70여종목에 대한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 검사 수수료의 50%를 교회예산을 들여 실시하여 신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장목사는, 매년 1회씩 신자들의 종합건강검사를 실시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힘쓰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검사업무의 효율적 관리 도모

'90년도 전문분야별 교육 실시



健協은 '90년도 전문분야별(생화학, 혈액학) 교육을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지부 홍보관에서 실시했다.

세분화된 검사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정도 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각 시도지부의 생화학·혈액학 분야 임상병리사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서울의대 김진규 교수의 “생화학적 검사와 Cancer 진단”, 연세의대 권오현 교수의 “혈액학적 검사와 Cancer 진단”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내부 정도관리 향상을 위한 효율적 방안, 혈액 검사용 시료의 관리 등에 대한 분임토의가 이루어졌다.



## 학생 건강 증진 위한 관심사 토의

건협 서울지부, 학교 양호교사 초청간담회 실시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부터 학교 양호교사 초청간담회를 홍보관에서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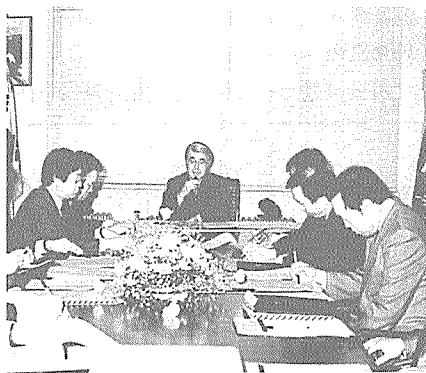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후원으로, 학교·학생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학생 건강관리 의식 고취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시교위 체육교육과 체육계장, 초·중·고교 양호교사회 임원 및 각 구 대의원을 비롯해 본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협 서울지부 사업 소개 및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있었으며, 학생 기생충 관리, 간염, 빈혈, 비만, 당뇨, 심전도 검사 실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

악하는 한편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 보건계몽활동 확대 방안 등 논의

'90년도 제1차 사무국장 회의



健協은 '90년도 제1차 사무국장 회의를 지난 3월 28일부터 2박 3일간 본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90년도 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 기반 정착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89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 및 '90년도 1/4분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가 있었으며, 보건계몽활동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